

# 실수투성이 초보 농부였지만 이젠 어엿한 동네 '일꾼'

다문화 사회를 위한 연속기획

## 근마워요 당신의 땀방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과 꿈



<3부> 한국은 또 하나의 고향

12 영농조합서 일하는 필리핀 산업연수생 엘드렌 씨

“농장에서 땀 흘린 경험이 삶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 같아요.”

필리핀 산업 연수생 엘드렌(27·Eldren)씨는 자신의 소망인 슈퍼마켓 개업을 위해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영농조합법인에서 2년째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필리핀에서 교육대학을 마친 엘드렌은 지난 2006년 초등학교 선생님의 꿈을 접고 한국행 비행을 뒀다. 필리핀에서 교사급은 매월 30만 원 가량. 이 돈으로 자신의 가게를 꾸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에 한국 생활을 택했다고 한다.

한국에 온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공단과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엘드렌씨는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농사일을 선택했다. 채소·농산물 슈퍼마켓의 운영을 위해서는 농사일을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농장생활 2년째에 접어든 엘드렌은 자타가 공

히였다.

김씨 부부는 엘드렌을 이방인 노동자가 아닌 가족으로 보듬은 탓에 그가 실수할 때마다 꾸중 대신 격려를 잊지 않았다.

농장의 안주인인 진씨는 “엘드렌이 누구보다 성실하고 일에 열정적이었기 때문에 칭찬보다 격려가 앞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이같은 김씨 부부의 전폭적인 신뢰 덕분에 엘드렌은 절친한 형인 빈센트(34·Vincent)와 농장에서 함께 일하게 됐다. 두리농장에서 초창기에 함께 일했던 제이슨이 떠나면서 적잖은 외로움에 시달렸던 엘드렌이 빈센트를 직원으로 추천하자 김씨 부부가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다.

진씨는 “우리가 가족 못지 않게 대해주지만 한편으론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 때 때 마침 빈센트를 추천해 두말 않고 고용하게 됐다”며 “이젠 엘드렌 때문에 주위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추천할 정도다”고 말했다.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엘드렌(27·Eldren·오른쪽)씨가 담양군 수북면 황금리 두리영농조합 채소밭에서 농장 대표 진민자씨(44·가운데), 빈센트(34·Vincent)씨와 함께 상추를 수확하고 있다. 위 사진은 트랙터를 운전하고 있는 엘드렌씨.

### ■ 외국인 노동자 임금 제대로 받고 있나

호남권 외국인 노동자 체불현황

구분	(단위: 개소·명·백만원)	
	2007년 8월	2008년 8월
사업장수	32	87
근로자수	51	197
체불금액	92	391

(자료:노동청)

### 고질적 임금체불 여전

올해 8월 197명...체불사업체 증가세

호남, 제주권 외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고질적인 임금체불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동부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발생 및 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광주·전남, 제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노동청의 임금체불액은 지난 2007년 8월 현재 9천200만원이었으나, 올 8월에는 3억9천100만원으로 무려 2억9천900만원 증가했다.

체불 근로자수도 지난해 8월 현재 51명이던 것이 올 8월에는 197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체불액 대부분인 2억300만원은 노동청의 중재 등으로 지급됐지만, 10명의 근로자들이 체불액 1천9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올해 들어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체가 84% 증가했다.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체는 올해 8월 말 현재 2천25개 사업체로 지난해 1천97개 사업체에 비해 84.6%(928개 사업체) 증가했다.

또 올 8월 현재 체불임금 발생 외국인 노동자는 3천877명으로 지난해 2천249명에 비해 72.4%(1천628명), 체불액은 95억3천300만원으로 지난해 62억8천만원에 비해 51.8%(32억5천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농사일 배우기 2년째...채소 재배·관리엔 자타가 공인

### 농산물 슈퍼마켓 개업 꿈...한국 경험 소중한 자산 될 것

인하는 두리농장의 대들보지만, 일을 처음 배울 때는 손대는 일마다 실수투성이였다.

제품 출하 과정에서 상추 포장지에 붙여야 하는 바코드를 무에 붙여 놓았던 일은 그나마 웃어 넘길 수 있는 에피소드. 그러나 “상추밭에 물을 주러”는 말을 잘못 알아들어 자란 상추를 모조리 뽑아놓아 농장 관계자를 경악케 한 일은 풀이키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이다.

어엿한 농군으로 거듭 태어난 엘드렌은 상추 모종을 심는 단계부터 병해충 방제, 비료 살포시기, 수확법 등 농장의 모든 일이 머릿속에 들어 있을 정도로 해박하다.

작물 관리용 트랙터 운전은 물론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작물 관리요령을 가르쳐줄 정도로 채소 관리에 관한한 자타가 공인하는 ‘일꾼’이다.

엘드렌이 낯선 한국생활과 농사일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데는 두리 농장 대표 김삼식(45), 진민자(44)씨 부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큰

하지만 엘드렌과 김씨 부부가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언어장벽이다. 손에 익은 농사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진솔한 대화로서 마음을 나누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엘드렌이 농사일과 달리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느린 데다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필리핀 고유어인 ‘따갈로그어’로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 이런 사정 때문에 김씨 부부는 중요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경우 외국인 노동자 고용업무를 지원하는 산업인력공단 등에 통역을 부탁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엘드렌은 “김씨 부부와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서로 무엇을 원하는 지 고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은 큰 문제가 아니다”며 “서로 흥분이 대화할 수 있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농사 일처럼 한국말도 열심히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11월 3일은 “학생독립운동기념일”입니다

# 학생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배님들의 열을 다시 한번 기립시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음10.3) 우리의 개국일은 개천절과 일본의 국경일이 명치절이 겹치기운데 한국학생들에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민족적 울분을 갖게된 학생들이 일본인 학생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의거이며, 3.1운동에 버금가는 민족해방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항일투쟁을 기념하여 이 날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학생들은 이나라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선배님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과 민주화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으며 싸웠습니다. 6·10만세와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모든 나날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역사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선배님들의 희생으로 이자리에 존재해 희망차게 꿈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배님들의 항일투쟁으로부터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 11월 3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만큼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것인가?

이제 우리 남들을 위해 고개숙여 다시 한번 지난 그날들을 상기해 봅시다.

- 전라남도 목포교육청
- 국립목포대학교
- 국립목포해양대학교
- 대 불 대 학교
- 초 당 대 학교
- 한국학원 목포시 총연합회
- 목포가톨릭대학교
- 동 아 인 재 대 학
- 목포과학대학
- 한국폴리텍V목포대학
- 성 화 대 학교